

문화재청 공고 제2020-26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거나 해제 및 지정정보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총 9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9. 7.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제999호 (1989.4.10.)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陝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1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해인사성보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간이벽온방(언해) 簡易辟瘟方(諺解)	1권 1책	국 유 (국립한글박물관)
2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1좌(4폭)	동아대학교 (동아대석당박물관)
3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金海大成洞七十六號墳出土頸飾)	1건 3조 2,473점	국 유 (대성동고분박물관)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4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金海 良洞里 二百七十號墳 出土 水晶頸飾)	1건 146점	국 유 (국립김해박물관)
5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金海 良洞里 三百二十二號墳 出土 頸飾)	1건 2조 574점	국 유 (국립김해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예고사유
보물 제999호 (1989.4.10.)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陝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1구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해인사정보박물관)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대상 : 총 2건

지정사항	문화재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국보 제229호 (1985.8.9.)	창경궁 자격루 (昌慶宮 自擊漏)	창경궁 자격루 누기 (昌慶宮 自擊漏 漏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루를 구성하는 부재(자동시보장치 등)가 완전하지 않고 물그릇(파수호 및 수수호)만 남아 있어 현재 명칭으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음 •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에 물시계 그릇을 가리키는 용어로 ‘누기(漏器)’가 보편적으로 쓰였으므로, 원소재지(창경궁)와 용도(자격루), 현존 유물(누기)을 모두 포

			합한 용어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동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보물 제986호 (1989.4.10.)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靑陽 雲藏庵 金銅菩薩坐像)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좌상 (靑陽 雲藏庵 金銅觀音菩薩坐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불상의 '중수발원문'(1610년)에 '관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 『청양군지(靑陽郡誌)』(1965년)에 동 불상을 '관음'으로 지칭한 점 등을 근거로 오래전부터 관음보살로 신앙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래의 존명(尊名)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지정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마.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예고】

□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陝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 현 지정현황 : 보물 제999호(1989. 4. 10. 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陝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해인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정보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82.4cm, 무릎 폭 66.6cm, 앞 뒤 최대폭 44.0cm
- 재 질 : 건칠, 목조
- 형 식 : 좌상(坐像)
- 제작연대 : 고려 10세기 경
- 사 유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좌상’은 신라 말~고려 초에 활동한 승려인 희랑대사(希朗大師, 10세기)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초상조각[祖師像;僧像]으로서,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한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高僧)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을 많이 제작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유례가 거의 전하지 않으며 이 작품이 실제 생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재현한 유일한 조각품으로 남아 있다.

희랑대사는 화엄학(華嚴學)에 조예가 깊었던 학승(學僧)으로, 해인사의 희랑대(希朗臺)에 머물며 수도에 정진했다고 전하며 태조 왕건(王建)의 스승이자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희랑대사좌상’은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통해 해인사의 해행당(解行堂), 진상전(眞常殿), 조사전(祖師殿), 보장전(寶藏殿)을 거치며 수백 년 동안 해인사에 봉안(奉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가야산기(伽倻山記)」 등 조선후기 학자들의 방문기록이 남아 있어 전래경위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이 작품은 얼굴과 가슴, 손, 무릎 등 앞면은 건칠(乾漆)로,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해 만든 당시 제작기술이 잘 남아 있고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아 왔다. 이렇듯 앞면과 뒷면을 결합한 방식은 보물 제 1919호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예처럼 신라~고려 초에 해당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불상조각에서 확인되는 제작기법이다.

건칠기법이 적용된 ‘희랑대사좌상’은 조선 후기에 조성된 ‘신록사 조사당 목조나옹화상’(神勒寺 祖師堂 木造懶翁和尚, 1636년), ‘부석사 조사당 목조 의상대사상’(浮石寺 祖師堂 木造義湘大師像, 고려 말~조선 초), ‘괴산 각연사 유일대사상’(槐山 覺淵寺 有一大師像, 조선 후기) 등 다른 조사상들과 달리,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마르고 아담한 등신대의 체구, 인자한 눈빛과 미소가 엮게 퍼진 입술, 노쇠한 살갓 위로 드러난 골격 등은 매우 생동감이 넘쳐 마치 살아생전의 모습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가슴에는 ‘흉혈국인(胸穴國人)’이라는 그의 별칭을 상징하듯,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이 흉혈(胸穴)은 해인사에 전래된 설화에 의해 희랑대사가 다른 수님들의 수행 정진을 돕기 위해 가슴에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고승의 흉혈은 보통 신통력을 상징하며 유사한 사례를 ‘북한산 승가사 승가대사상’(1024년)에서도 볼 수 있다.

이상 서술한 바와 같이 기록과 현존작이 모두 남아있는 조사상은 지금까지 ‘희랑대사좌상’이 거의 유일하게 알려져 있고 실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실제 인물처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내면의 인품까지 표현한 점에서 희소성·예술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삼국 통일에 기여하고 불교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희랑대사라는 인물의 역사성과 시대성이 뚜렷한 제작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조각상은 고려 초 10세기 우리나라 초상조각의 실체를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작품이자, 희랑대사의 높은 정신세계를 조각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인류문화사적으로 의의가 높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탁월하므로 국보로 지정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물 지정 예고】

□ 간이벽은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간이벽은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
- 소 유 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1권 1책(25장)
- 규 격 : 半郭 22.1×15.2cm, 32.3×20.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亥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578년(선조 11) 이전 추정

○ 사 유

‘간이벽온방(언해)’는 1525년(중종 20) 의관(醫官) 김순몽(金順蒙), 유영정(劉永貞), 박세거(朴世舉) 등이 왕명을 받아 전염병 치료에 필요한 처방문을 모아 한문과 아울러 한글로 언해(諺解)해 간행한 의학서적으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은 1578년(선조 11) 이전 을해자(乙亥字, 1455년 을해년에 주조된 금속활자)로 간행한 것이다.

지정예고 대상 ‘간이벽온방(언해)’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으로 첫 면에 ‘선사지기(宣賜之記)’ 인장이 찍혀 있고, 앞표지 뒷면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手決]”의 내사기(內賜記)가 있어 1578년(선조 11, 만력 6)년 정월 당시 도승지였던 윤두수(尹斗壽, 1533~1601)에 의해 성균관박사 김집(金緝, 1610~?)에게 반사(頒賜)된 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이 늦어도 1578년(선조 11)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간이벽온방(언해)’는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문화재의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판본으로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하며, 초간본 또한 알려진 사례가 없어 서지학적 가치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된다. 조선시대 한의학 뿐 아니라 금속활자 발전사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 현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6호(2014.9.24. 지정)

○ 명 칭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수 량 : 1좌(4폭)

○ 규 격 : 전체(병풍틀 포함) 179.4×312.4cm, 각 화폭 110.0×61.6~62.0cm

○ 재 질 : 삼베에 수묵채색

○ 형 식 : 병풍(屏風)

○ 조성연대 : 1604년(선조 37)

○ 사 유

지정예고 대상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품으로, 선조 연간(1567~1608) 녹훈(錄勳)된 구공신(舊功臣) 및 신공신(新功臣)들이 1604년(선조 37) 11월 충훈부(忠勳府)에서 상회연(相會宴)을 진행한 장면을 그린 기록화이다. 당시 상회연에 대해서는 이항복(李恒福, 1556~1618)

과 유영경(柳永慶, 1550~1608)이 상회연에서 선운(宣醜, 왕이 하사한 술)을 하사받은 것을 사례하는 전문(箋文)을 선조에게 올렸다는 『선조실록』 권181, 37년(1604) 11월 13일자 기사를 통해 실제 거행 사실 및 개최 경위를 알 수 있다.

상회연의 신·구공신은 1590년(선조 23) 2월 1일 녹훈된 광국공신(光國功臣: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잘못 기재된 이성계의 가계를 바로잡는데 기여한 공신)과 평난공신(平難功臣: 정여립의 모반사건을 평정한 공신) 42명, 1604년(선조 37) 6월 25일 녹훈된 호성공신(扈聖功臣: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신), 선무공신(宣武功臣: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공을 세운 공신), 청난공신(淸難功臣: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신) 109명을 포함한 총 151명이다.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의 좌쪽에 적힌 공신들은 1604년 상회연 당시 생존해 있던 63명의 명단으로, 이중 5명(이산해, 류성룡, 정탁, 이운룡, 남절)은 노환(老患)으로 불참했으므로, 실제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58명이다. 좌쪽은 공신 명칭, 문무관 품계, 자, 생년, 본관, 이름순으로 기재되었다.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은 총 4폭으로 구성되었다. 왼쪽 제1폭은 상회연의 장면을 그린 것이고, 제2폭~제3폭에 걸쳐 참가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이며, 제4폭은 위쪽의 제목을 제외하고 내용은 비어 있다. 각 폭은 비단 2쪽을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어 붙였으며, 제2폭부터 제4폭까지 위쪽에 붉은 선을 그어 구획을 하고 그 안에 전서체로 제목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라고 적었다.

흰 차양 아래 3단의 돌계단 위에서 공신들이 임금이 하사한 술을 받는 장면이 중앙에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 옆에서 음식을 화로에 데우는 모습 등 준비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 그려진 공신들의 숫자와 실제 참석자는 58명으로 일치하며, 위에서 내려 본 부감시(俯瞰視)로 특징만 포착해 선묘로 간략하게 그린 특징은 17세기 기록화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원경의 눈 덮인 설산(雪山)과 앙상한 나뭇가지 표현은 상회연 개최 시기인 음력 11월 상순이라는 계절감을 전달해 주며, 필치가 매우 세밀하고 단정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은 공신 관련 그림으로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작품이라는 점, 제작시기가 명확해 기년작이 드문 17세기 회화 양식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미술사적 의의를 모두 지닌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金海 大成洞 七十六號墳 出土 頸飾)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金海 大成洞 七十六號墳 出土 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대성동고분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26, 대성동고분박물관
- 수량 : 1건 3조 2,473점
 - 수정제 곡옥 2점, 수정제 다면옥 8점, 마노제 다면옥 74점
 - 마노제 환옥 3점, 유리제 곡옥 3점(별도 곡옥 2점 포함), 소형 유리 구슬 2,383점
- 규격 : 전체 연결 길이 210.4cm
 - (바깥 목걸이 95.5cm, 중간목걸이 61.2cm, 짧은목걸이 53.7cm)
- 재질 : 수정, 마노, 유리
- 형식 : 수정, 유리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 목걸이
- 조성시기 : 3~4세기
- 사유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2011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조사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의 목곽묘에서 토기나 철기 등의 공반(公班) 유물과 함께 발굴되어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장신구로서 출토지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출토된 목걸이는 1건 3조로, 수정제 구슬 10점, 마노제(瑪瑙製) 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하나의 유적에서 일괄로 발견되었고 그동안 금관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착장자의 신분적 위상과 지배계층의 위세와 권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학술적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공예기술적인 면에서 목걸이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맑고 투명한 수정과 주황색 마노 및 파란색 유리와 같이 다종다양한 재질과 색감을 조화롭게 구성한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유리를 곡옥(曲玉)이나 다면체 형태로 섬세하게 가공하고 세밀하게 구멍을 뚫어 연결하거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등 조형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당시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이 매우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다종다양한 재료를 정교하게 가공한 기술, 색상과 질감의 조화로 가야인들의 장신구 문화의 세련된 수준을 엿볼 수 있다. 금관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공예품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金海良洞里二百七十號墳出土水晶頸飾)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칭 :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金海良洞里二百七十號墳出土水晶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량 : 1건 146점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수정제 곡옥 6점)
- 규격 : 전체 연결 길이 142.6cm.
 - ① 중앙 최대 다면옥 크기 : 높이 35.8mm. 최대 폭 32.3mm.
 - ② 주판옥 크기 : 높이 13.0mm × 최대 지름 13.1mm ~
높이 6.5mm × 최대 지름 7.6mm.
 - ③ 곡옥 크기 : 향좌측 중앙 대형 : 길이 34.5mm, 두께 18.9mm.
향좌측 최소형 : 길이 21.9mm, 두께 14.0mm.
- 재질 : 수정
- 형식 : 수정제 다면옥과 주판옥, 곡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 조성연대 : 3세기 추정
- 사유

‘김해 양동리 제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2년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이 지역의 제2차 발굴 조사 중 토광목곽묘에서 발굴한 유물이다. 270호는 인접한 여러 고분과 겹쳐 있어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으나 고배(高杯, 높다리 그릇)를 비롯한 토기류나 철제 유물이 함께 출토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김해 양동리 제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제 다면옥 20점과 주판옥 120점, 곡옥(曲玉) 6점 등 총 146점의 수정으로 이뤄진 142.6cm의 길이에, 육각다면체형, 주판알형, 곡옥형 등 형태가 다양하고, 색채에 있어 맑고 투명한 무색과 황색 및 갈색 등의 다채로운 색상의 수정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형태 또한 조형적인 가치가 뛰어나다.

목걸이를 구성하고 있는 수정(水晶)은 보통 경상남도 양산 등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3세기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지배계층의 위세품(威勢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더욱이 수정 목걸이는 3~4세기 가야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지만, 이 목걸이처럼 수정의 형태와 색채가 다양하고 크기도 크며, 146점의 많은 수량이 출토된 경우는 드문 사례로서 희소적인 가치가 크다.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현황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다종의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정교하게 가공하거나 구멍을 뚫는 세공기술이 돋보이며, 다채로운 색상과 질감을 조화시켜 3세기 금관가야의 세련된 문화적 수준을 엿볼 수 있어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金海良洞里 三百二十二號貴出土頸飾)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金海 良洞里 三百二十二號墳 出土 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박물관
- 수 량 : 1건 2조 574점
 - 수정제 다면옥 2점, 수정제 곡옥 147점
 - 유리 곡옥 1점, 마노 환옥 6점, 소형 유리 환옥 418점
- 규 격 : 총 길이 164cm
(수정 목걸이 99.1cm, 유리 환옥 목걸이 64.7cm)
- 재 질 : 수정, 마노, 유리
- 형 식 : 수정과 마노, 유리 등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 조성연대 : 3세기 추정
- 사 유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4년까지 동의대 박물관에 의해 2차 발굴조사한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함께 공반(公班) 출토된 유물 중 중국 한 대(漢代) 청동 예기로 밝혀진 청동 세발 솥[鼎] 등을 통해 3세기 금관가야 고분이 확실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목걸이는 수정제 곡옥 147점,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 환옥 6점, 파란 유리 환옥 418점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보석 총 574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경도 7의 단단한 수정(水晶)을 다면체로 가공하거나 많은 수량의 곡옥(曲玉) 형태로 섬세하게 다듬은 가야인들의 기술적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정이나 마노 및 유리 등 여러 종류의 보석을 섬세하게 다룬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보석세공품으로서 삼국시대 복식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유물로 꼽힌다.

경남 김해 지역 이외 초기 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으나,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동일한 고분에서 수정제 곡옥 147점이 일괄로 다량 출토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처럼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이 분명할 뿐 아니라 수정제 곡옥이나 대형 유리제 곡옥이 한꺼번에 발견된 희귀한 사례로서 중요하며,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한 기술과 다채로운 색채와 질감이 조화를 이룬 조형의식이 돋보여 당시 장신구 문화의 세련된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3세기 금관가야의 지배층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귀중한 장신구로서 보물로 지정할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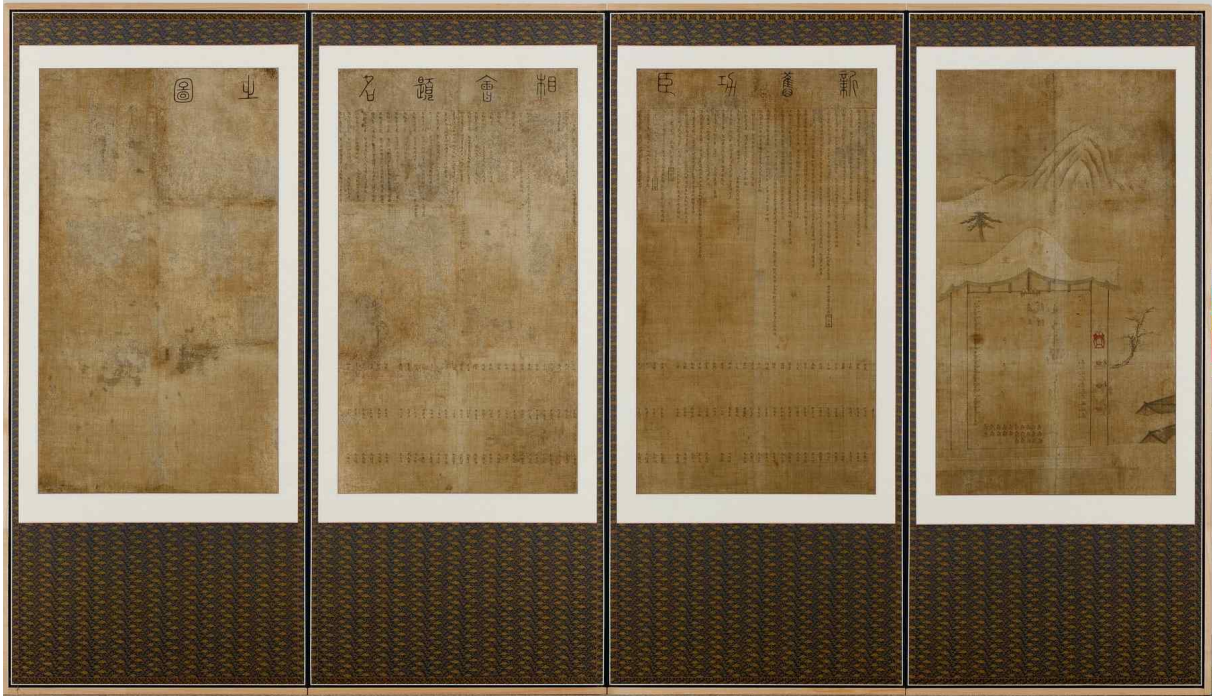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 보물 지정 예고



<간이벽온방(언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